

# “의대정원, 10년간 15~25% 증원”

###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 의료대란 중재안 제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 향해 “적극 대화로 의료계 설득해야… 총선용으로 이용해서도 안돼”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그에 따른 과업 사태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증원 △지방 국립의대 설립 및 10+5년 지역 의사제 도입 △500명 이상 지역 공공의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여야의 유관 상임위서 현안 점검 및 청문회 개최 촉구 △정부, 정계, 의료계, 시민사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설립 및 대책 도출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면 초기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하되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소재 의대에만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0+5년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 “국립 의정원을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의료 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500명 이상 지역 공공의

료원 건립을 제안한다”며 “지방의 공공 의료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의대만 증원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와 대학교수, 대한의사협회까지 이탈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도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했다”며 “그동안 의료계 스스로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인 신병철 국방차관 천안갑 지역구 단수 공천 △임종택 전 안보실 2차장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공천 등을 언급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갈등을 유발해서 총선용으로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힘 ‘변화·혁신·감동’ 3무 공천, 민주 친명황재 비명횡사”

### 새미래, 양당 공천 비판… 김종민 “민주, 논란 여조 업체 규명해야” 박원석 “국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등 공천… 문제인사 방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미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미래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위원회를 열고 양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른바 친명황재, 비명횡사의 민주당 공천 과정이 공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정 경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 선관위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조사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업체를 제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무자격 업체가 그동안에 뭘 했는지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업체가 박용진, 송갑석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 다수 조사를 맡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비명계 전담 업체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시 이 업체가 어떤 의원들을 조사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선 이번 공천 과정이 단순한 편파 공천이 아니라 불법 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책임위원은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의 실상은 조용하기만할 뿐 변화도, 혁신도, 감동도 없는 3무 공천”이라고 일갈했다.

박 책임위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현역의원 탈락도 없는 현역파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목표는 불만 없는 지루함이 아닌가 싶다. 그에 더해 문제제성 인사들의 도과공천이자 방탄공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인 신병철 국방차관 천안갑 지역구 단수 공천 △임종택 전 안보실 2차장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공천 등을 언급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다 못해 국민 눈을 가려버린 조종한 ‘순수입 공천’을 당장 바로 잡아라”라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투표장에서까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 고종운 예비후보도 합류 민주 전주를 ‘5인 경선’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를 더불어민주당 전락선거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고종운 예비후보가 경선에 막차를 탔다. 총 5명이 경선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전주를 경선에 출마를 포기한 김윤태 유석대 교수 대신 컷오프됐던 고종운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의 당초 결정됐던 양경숙·이덕춘·이성운·최형재 예비후보 등은 그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들은 5인의 후보들이 1차 경선을 치른 뒤 상위 2명이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경선방식은 100% 국민경선으로 진행된다. /특별취재반

### 윤수봉 자치도의원 ‘원주 이서 남정지구 배수개선 국비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원주 1)은 배수불량으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군 이서면 마산천 일대 남정지구가 농림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홍수시 민경강과 마산천의 급격한 수위상승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형구조상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강제배수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배수장 용량부족 등으로 배수지연이 해소되지 않아 농경지 및 시설농가의 침수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남정지구는 이번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배수장 및 배수문 신설과 보강, 배수로 정비를 통해 배수능력을 개선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도청 및 시군청 담당자들과 수차례 현장방문을 주도해 배수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해 온 윤수봉 의원은 “농림부 사업에 선정된 것은 도의회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새미래, 당색 블루 터콰이즈 프러시안 블루 조합으로 확정

제3지대 신당 새미래(새미래)가 블루 터콰이즈와 프러시안 블루 조합으로 당색을 확정했다. 새미래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위원회를 열고 확정된 당색을 발표했다. 발랄함과 역동성,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새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블루 터콰이즈는 보석 터기석에서 따온 이름이다. 민트색에 가까운 맑은 바다 색이다. 보조색은 프러시안 블루로, 기존에 사용했던 색으로 전통과 신뢰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당의 기본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새로운미래’로 하되 지역, 후보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미래는 이날 시니어모델 최순화(80)씨를 다섯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씨를 두고 “최씨의 소신은 조금 늦었을 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할 만큼 늦지는 않았다는 신념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며 “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도전과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했다. /뉴스

## “입틀막 방지법,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 민주 이덕춘 예비후보, “대통령경호법 2조1항 개정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 잃을 것” 주장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주)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과잉경호로 ‘입틀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26일 전북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리의 전당인 카이스트에서 R&D 예산 복원을 의치는 학생의 입을 막는 등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과잉경호의 발단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6일 오후 4시 예수병원을 방문해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 해달라”

### 임상규 행정부지사, 예수병원 방문 의료진 격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6일 오후 4시, 정부 의료정책과 관련한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예수병원을 방문했다. 지난 22일 김광영 도지사가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예수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듣고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환자실을 방문해 의료공백 등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분

들의 결을 지켜주시는 의료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2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4일부터 지방의료원에서는 평일 연장진료, 주말 오전진료를 시행하는 한편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파견 시 연장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보건당국은 경증·비응급환자는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선거구 1석 축소 위기 후보자들 “10석 사수” 호소

### 강성희 “민주, 입장 변경해야” · 정동영 “단일대로 합심해야”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전북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도내 총선 예비후보들은 비판과 함께 10석 사수를 호소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선거구 확정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사에서 최고위 회의 후 “민주당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자고 어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마쳤고 당 대표와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절대 용납 할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경을 촉구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국민의힘이 고집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국민의힘의 전북 축하기를 180만 전북 도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호남 차별이 이끌어 난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주장 또한 듣는 귀를 의심케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같은 작심 비판을 하면서도 “아직 늦지않고 포기할 때도 아니다”라며 “정개특위를 연기하고 국회 본회의를 3월 초 재소집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원안 거부 입장을 확실히 천명하고 전북 국회의 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도 26일 전북자치도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선거구 확정안은 18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무거운 처사”라며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은 단일대로 합심해 이를 막아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의 마지막 시한은 26일 여야합의와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므로 총력을 집중해 10석 존치 당위성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이용호, 진보당 강성희 의원까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를 잣대로 획리적인 기준을 삼는 것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며 정치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미구 알래스카 주는 인구는 턱없이 적지만 큰 도시 주처럼 2명의 상원의원을 뽑아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예비후보(전주)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예비후보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제헌 국회 이래 전북 의석수는 계속 감소해왔다”며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번에는 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의석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의석수 감소 위기에 도 전북 정치권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선거구획정안 발표 이후에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잠정 합의하고 선관위에 전달된 4가지 특례안도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남이다. 전북은 특례 안에도 빠져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